

## 다양한 방식으로 인구 늘리기에 나선 지역들

강원도 균형발전과 균형발전정책팀  
2024.1.7.

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 
2024.2.14.

### 강원도, 거주·체류 인구 늘리기 위해 3개년 시범사업 추진

강원도가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도내에 거주·체류하는 인구를 늘려 나가  
기 위하여 ‘강원 스테-이(GANGWON STA-E)’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 
2026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.

강원 스테-이 시범사업은 ‘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 지원’과 ‘강  
원 스테-이 하우스 운영 지원’, 두 개 분야로 추진된다. 먼저 인구소멸 심각  
위험지역 특별 지원 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한 개 지역을 선정, 대상 지역  
에 새로 유입된 이주민의 정착을 돕고 지역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지역 맞춤  
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. ▲공동육아 나눔터 및 초등 공동돌봄센터 프  
로그램 ▲청년 창업·커뮤니티 프로그램 ▲마을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  
등을 운영하며 ▲지역체류형 교육·문화·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 
방침이다. 강원 스테-이 하우스 운영 사업을 통해서 지역 유휴공간을 활  
용하여 한 달 살기 등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사무·주거·공용공간과 편의  
시설을 마련하게 된다. 공모를 통해 매년 2개 시·군을 선정하여 유휴공간을  
주거·공용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지원한다.

### 경상북도, 외국인 지역 정착 지원하는 ‘경북글로벌학당’ 개소

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광역 단위 한국어 교육기관이자 사회 적  
응을 돕는 ‘경북글로벌학당’이 2월 14일 문을 열었다. 경상북도는 외국인 유  
학생 등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북도립대학교에서 경북글로벌학당 개소  
를 알리고 현판식을 개최하였다.

도는 “경북글로벌학당은 전국 최초의 광역 단위 한국어 교육기관”이  
라면서 “적극적인 이민정책의 일환이자, 외국인이 지역에 스며드는 따뜻한  
지방사회를 목표로 한다”라고 학당 설립의 취지를 설명하였다.

경북글로벌학당에서는 27개국 총 680명의 유학생과 근로자에 대한  
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, 유학생 교육 과정(2주간)과 외국인 근로자 교육  
과정(1일)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. 교육은 한국어 토픽, 외국인 정책, 법제  
도, 생활정보, 문화·산업·경제·정주여건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  
하였으며 산업현장도 방문한다. 또한 향후 교육 과정 확대 및 다변화, 수료  
자 비자 발급 인센티브, 일자리 매칭 및 사회적응 지원 등을 추진하여 외국  
인 정착 지원의 우수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